

닭, 질병검사 강화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요령 고시

농림수산부는 '96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요령을 고시하고 △국내산 육류의 잔류물질 검사 △육류의 안전성 확보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 △국민보건향상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월 5일 고시된 동 요령에 따르면 시, 도 가축위생검사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연중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수의과학연구소를 통해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조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에서는 간이 정성시험 및 정밀정량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닭의 경우 농장 또는 도계장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의 간이정성검사와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항생물질의 경우 페니실린, 암피실린,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5종을, 합성항균제는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등 2종이다.

검사결과 유해성 물질잔류 양

성 판정시 도계품의 불합격조치와 농가 및 도계정의 특별관리를 실시하여(농장주적, 사양관리 실태 및 도계과정 점검, 개선방안 계도) 재차 출하할 경우 검사 완료시 까지 출고를 보류해 정밀검사를 실시토록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재차 양성반응이 보이면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유해성 물질 잔류(양성)판정시료가 발생되면 농장명, 축

종, 소재지 축주명을 관계기관에 보고해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 근본적으로 잔류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는 한편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휴약기간의 준수, 사육위생의 제고, 약품사용의 오, 남용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생산자단체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아시아, 동물성 단백질 소비잠재력 크다

전세계 인구의 60%를 점하는 아시아는 동물성단백질 소비가 낮았으나 소비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 닭고기 1인당 소비는 평균 8kg이며 북아메리카 31kg, 유럽 15kg에 비해 아시아는 4kg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율은 최근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세계 닭고기 연간증가율 4%에 비해 아시아 지역은 7%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

년동안 아시아에서 중국, 태국은 중요한 수출국이었으며 60년이후에도 매년 10%이상 성장을 기록하였다.

닭고기의 수입에 있어서도 일본, 홍콩,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닭고기 수출입의 주요시장이 되고 있다.

아시아의 닭고기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소비가능성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신장하고 있다.

철저한 차단방역 발전하는 육체산업

단 신

(주)하림 사보창간

(주)하림은 사보 '하림' 창간호를 지난 1월 25일 발간하였다. 24면 전면 컬러로 발행된 사보는 동사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해 11개 부서의 사보기자들의 힘으로 제작되었으며 유종근 전부지사 의 축사, 류달영 교수의 격려사, 최승범 전북대 교수의 축사 외에 사내소식, 논단 등을 편집해 회사의 대외 홍보는 물론 사원의 일체감과 긍지가 담겨 있다.

이탈리아, 가공육 소비증가

이탈리아의 가공육 소비는 통닭 및 부분육 유통이 87.7%에 이른다. 이는 93년도 보다 1.3%가 감소한 것으로 점차 가공육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공육의 가공품종에는 소세지, 햄버

거 등이 7.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너겟, 커트렛이 4.1%, 즉석요리제품은 0.7%였다. 이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광고홍보의 결과로 94년도 부터 신장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미국, 신선육표시 개선

미국은 금년 8월 25일 부터 신선육은 결빙이 시작되는 -3℃ 이하 상태로 한번도 저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선육(FRESH)표시 요령을 개선하였다.

미국은 현재까지 냉동육과 신선육의 구분이 냉동상태인 -17℃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농고의 여성화추세 가속

산업에서의 농업의 위치가 열세화 되면서 농업고등학교의 여고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남학생들이 공업계열에 비해 농업계고교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외에도 전통적인 농업, 축산 등의 학과를 폐지하고 식품공학과, 유통정보과, 환경보건과, 조경과 등 농, 공, 상의 성격이 혼합된 학과를 신설하거나 종합고등학교

로 전환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농고의 여학생 비율은 93년 21%, 94년 25%, 95년 27%에서 금년은 30%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기없는 수입 닭고기

인기 양계전문지 Poultry International자는 최근호에서 '한국에서 고가에 수입된 닭고기 인기상실로 한국정부의 수입업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는 제하의 기사로 한국내에서 수입냉동 닭고기의 인기가 없음을 시사화 하였다.

이 기사에서 한국의 닭고기 소비형태로 하절기 소비증대와 시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곤경에 빠졌다고 밝혔다.

계열화사육 생산책임자 회의

계열화 사육 생산책임자 회의가 지난 1월 17일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회원시중 9개 계열사 생산책임자가 참석해 각사별 95년 계열생산실적 및 96 계열사육생산계획에 대한 의견

닭전염병 박멸대책위원회 발족

농림수산부는 근본적인 가축 질병대책을 위해 가축질병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하고 닭전염병 박멸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중)를 발족시켰다.

2월 7일부터 업무에 들어간 동위원회는 간사에 김기석 박사(수의과학연구소 계역과장)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관계공무원, 학계, 업계인사 등을 참여시켜 근본적인 닭질병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배상호, 김홍국, 김영환, 김인식, 오경록, 이규성, 김상희, 배선채, 최우명, 최길영

닭고기 수출입 국가간 생산비 큰 격차

세계주요국의 닭고기 생산비 비교에 의하면 주요수출국중 미국, 브라질의 생산비가 가장 낮고, 중국과 태국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7월의 생산비비교는 도체육 기준으로 미국, 브라질이 kg당 741~835원(1달러=780원 기준)이며, 중국, 태국은 1,037~1,092원, 유럽의 수출국인

프랑스, 네델란드는 1,560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 러시아, 사우디 등 수입국의 도매가는 2,340원에 이르고 있어 수입국의 도매가격이 수출국 생산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보면 △수입국의 국내 생산가격은 수출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주요수출국 사육비는 EC수출국의 사육비가 EC외 국가들보다 높는데 이는 사료가격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주요수출국중 미국, 브라질은 중국에 비해 생산비면에서 유리하지만 주변의 수입국에(일본, 홍콩)에 운송상에 이점이 있어 수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수입국은 노동집약적인 부가가치제품(2차가공품)을 찾고 있고 △중국의 일본 수출량이 계속증가하고 있으나 점차 중국내 곡물부족현상으로 수년내 중국의 닭고기 수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EU에서 네델란드와 프랑스간 닭수출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독일은 네델란드로 부터 많은 양의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가금육생산 활발

이전의 공산국가인 중, 동부유럽의 가금육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국가중 특히 폴란드의 생산과 닭고기 소비증가율이 높아 2천년에는 생산 45만5천톤에 비해 소비는 49만4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 동부유럽 10개국의 2천년 추정생산량은 1백72만1천톤으로 유럽연합6백45만2천톤의 27%에 이를 전망이며 소비는 유럽연합의 19.5%에 이르는 1백53만8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당 연간 가금육

소비는 EU(15개국) 20.9kg에 비해 CEEC(중,동부유럽 10개국)는 16.1kg에 이르고 있다.

종계생산성향상 심포지엄 개최

가금화회는 '96년 춘계심포지엄을 4월 19일(금)부터 1박2일 동안 도고글로리콘도에서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육용종계 사육문제점 △사양관리 기술개선 △사료급여 기술개선 △질병방역 △시설환경개선 △육용종계생산사례 등이 발표되며 선진지 견학도 있을 예정이다.

건교환과 최근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종계사육 및 병아리 생산에 대한 논의 등 계열사육에 대한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한편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모임의 회장에 신현구부장(대연식품)을 총무에 박세진 부장(TS해마로)을 각각 선임했다.

국내 닭고기 소비량 증가

95년도 닭고기 1인당 소비가 전년대비 5.5%가 신장된 5.8kg(정육기준)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증가에는 못미치게 되었다.
국내 쇠고기 소비는 1인당 7kg, 돼지고기는 17kg이다.

배선채 사장, 산업포장 수상

양계업계에서는 최초로 증원농장 배선채 사장이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받았다.
배사장은 Avian육용종계 GPS와 PS의 청정화와 사양기술 보

양계업계에서는 최초로 증원농장 배선채 사장이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받았다.

배사장은 Avian육용종계 GPS와 PS의 청정화와 사양기술 보급으로 양계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게 되었다.
동사는 95년도에 종계(PS)를 동남아 지역에 수출한바 있다.

김홍국 회장 '95영광의 얼굴 선정

본회 김홍국회장이 전라부도와 애환동분부가 선정하는 전북의 명예를 빛낸 인사에게 주는 '95 영광의 얼굴'에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올해로 14번째 수여되는 표창은 축산업계 최초로 KS마크를 획득한 공로로 산업부문 표창을 받게된 것이다.

축산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1월 11일 제열회분과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국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덕수 축산국장과 각과 과장이 참석하여 계

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계육생산 현장의 애로와 문제점을 청취하고 계육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종란관세 인하해야

계열화 시육업체는 물론 육계업체가 병아리가격 양동에 따른 생산비증가로 경쟁력 약화에 시달리고 있다.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육계생산비 국제비교 결과 병아리가격(기축비)이 차지하는 부담이 생체kg당 미국55원, 태국96원에 비해 우리나라는 193원~230원을 나타내 일본의 163원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돼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반하고 있다고 이 연구는 밝혔다. 이밖에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생산비의 양동은 닭고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져 병아리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래생산성 저하로 지속적인 병아리 가격의 고가 행진은 산업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업계에서는 종란의 할당관세 인하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계사시설 개선 시급하다

현대식 스테이트계사 생산성 크게 향상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선진육계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닭고기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계사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스테이트지붕의 현대식 육계계사에서 실증성적에서 닭고기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결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질병발생도 적고, 사육수수를 증가시켜 생산효율이 높아졌다. 육성율도 좋아 2kg까지 사육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도, 습도, 환기시설이 보완되면 평당 60수까지 사육해 생산비 10%의 절감이 가능하다.

반면 보온덮개 간이계사 육계사육농가에서는 낙하세균수, 음용수, 사료내 세균오염이 무한대 수준으로 사육환경이 최악의 상태로 밝혀졌다. 입추후 4~5주의 소모성질병으로 폐사율이 급증해 조기출하가 다반사이며 출하직전 다량의 폐사발생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육성율이 나빠 1.4~1.5kg 수준을 올리지 못하고 후기사료 급여는 어렵게 되어 닭고기의 안전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질병발생만연, 유통 닭고기 크기의 소형화, 안전성 문제

등의 근원적 해결은 물론 농가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육계농가의 계사시설 개선을 서둘러야만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계열사육농가중 위생적인 현대식 계사를 갖춘 농가의 성적이 좋아 사육비지급에 있어 보너스 등 수입이 늘고 있다.

계열주체는 자사 생산닭고기의 생산비절감과 안전성확보를 위해 꾸준히 현대식계사 사육농가의 선별적 계약조건의 조정 등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닭고기 MMA물량 141톤 유찰

금년도 닭고기 MMA물량 1만4백톤중 공매를 통해 9천9백59톤이 배정되고 외화수입용 3백톤을 제외한 141톤이 유찰되어 추후 공매할 예정이다.

전년도에 인기가 없어 예정물량의 수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데 비해 이번 공매에는 34개 업체가 응찰해 1,2차에 걸쳐 배정하게 되었다. 이번 배정된 물량은 오는 8월 30일 까지 전량 도착조건이다.

2월6일 공매에서는 참가자 신청물량이 거의 배정되었으며 본회 회원사는 6개사에서 1,500톤 정도가 배정되어 대부분 원료육

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전년도에 비해 금년은 육가공회사와 중상들의 대거 참여로 열기를 띠었으며 종합상사의 참여도는 전년도 수준에 그쳤다. 닭고기 국제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규격이 국제규격과 차이가 있어 금년도의 전망도 전년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95년 육계사료 12.6%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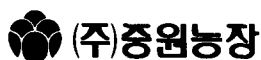
95년도 양계사료는 전년대비 8%정도 증가한데 비해 육계사료는 12.6%가 증가하여 1백36만톤에 이르렀다. 한편 산란사료는 3.2%, 종계사료는 7.9%가 각각 증가했으며 95년중 계속적인 질병의 피해로 산란율이 저조해 알값은 상승하였고, 닭고기는 소비신장과 맞물려 94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다. 망하고 있다. 1인당 연간 가금육소비는 EU(15개국) 20.9kg에 비해 CEEC(중,동부유럽 10개국)는 16.1kg에 이르고 있다.

2월 닭고기 우수성 광고

- MBC-AM
09:30~ 여성시대 2부
15:40~ 양희경의
트로트 가요 3부
- KBS-2R
16:30~ 오후의 대행진 2부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95 2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
계열주체 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영업부 TEL.(0417)567-7792, FAX.(0417)554-0771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M & CO., LTD.